

우정사업 종사자의 건강관리



순서	원고제목	필자	게재예상시기
총괄	공무원의 산업보건 : 위험과 실태	김인아 교수 (한양대 직업환경의학교실)	5월호
1	우정사업 종사자의 건강관리	장태원 교수 (한양대 직업환경의학교실)	6월호
2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장태원 교수 (한양대 직업환경의학교실)	7월호
3	경찰과 교정종사자의 건강관리	김인아 교수 (한양대 직업환경의학교실)	8월호

* 『산업보건』에서는 공무원의 건강보호를 위한 방향 및 연구를 소개합니다.



지난해 6월, 전국우정노동조합(우정노조)은 총파업을 예고했다. 다행히 우정노조가 정부의 중재안을 수용하면서 파업은 철회되었다. 만약 파업이 진행되었다면 1958년 우정노조가 출범한 이후 첫 파업이 되었을 것이다. 우정노조는 왜 출범 이후 60년 만에 파업을 하려고 했던 것일까?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우정사업 종사자 노동조건개선에 힘쓰기 시작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일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2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연장근로). 단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특례업종은 연장근로시간을 1주일 12시간을 초과하게 할 수 있는데 우정사업이 특례업종에 포함되어 있었다. 실제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집배원의 인력 감축과 우체국 택배 및 토요일 택배가 도입되면서 집배원의 노동시간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2018년 7월 1일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특례업종에서 우정사업은 제외된다. 우정사업 종사자의 근로시간을 주 52시간 이하로 감소시켜야 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 근로시간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업무량을 줄이는 방안과 인력을 늘리는 방안이 있는데, 업무량을 줄이기는 어려워 인력 충원을 하기로 결정한다. 결국 우정노조가 파업을 결정한 것은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한 인력 확보



장태원

한양대학교
직업환경의학교실

가 목표였다.

우정사업 종사자는 크게 국가공무원과 비공무원으로 나뉜다. 국가공무원에는 우정직, 행정직, 기술직이 있다. 우정직은 우편물을 배송하는 업무(집배)와 우편물 구분과 물류 업무(우편), 우편 창구 업무(계리)를 수행한다. 행정직은 인사와 노무 등 일반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기술직은 전산, 시설, 전기 등 전문 분야 행정 업무 또는 일반 행정 업무를 담당한다.

비공무원은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근로자가 있다. 집배 업무를 수행하는 집배원과 택배 업무를 수행하는 택배원, 우편집중국에서 우편물과 택배를 분류하고 적재하는 우정실무원 등이 있다. 국가공무원과 비공무원 외에도 청사 관리와 경비, 환경미화, 일부 소포와 택배는 산하기관을 통해 위탁을 하고 있으며, 우체국 보험은 개인과 계약해 업무를 위탁하기도 한다.

집배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2017년 8월 노사와 전문가가 모인 가운데 '집배원 노동조건개선 기획추진단(이하 추진단)'이 발족되었다. 추진단에서는 집배원의 노동조건과 건강실태를 조사하고 개선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모여서 회의를 개최하였고, 집배원 노동조건과 건강실태, 신체부하량을 조사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진행하였다.

이때 진행된 연구에 의하면, 설문조사와 전산에 등록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집배원의 체류시간¹⁾은 평일 11시간 32분, 토요일 7시간 14분, 일요일 8시간 1분으로 평균 11시간 6분이었다. 휴게시간을 뺀 실제 노동시간은 평일 기준 10시간 57분이었고, 연간 노동시간은 2,745시간이었다²⁾.

이는 OECD 국가의 임금 노동자의 연간 노동시간 1,763시간에 비해 982시간 길고, 우리나라 임금노동자의 연간 노동시간³⁾인 2,052시간에 비해 693시간 긴 시간이다. 하지만 현재는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의 권고 이후 소포위탁배달원 등 약 2,000여 명 인력의 증원 등을 통해 집배원의 업무강도는 다소 감소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3,993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각종 직업성 질환에 시달리는 우정사업 종사자

우정사업 종사자 중 집배원은 우편물 배송을 위해 이륜차(오토바이)를 이용

우정사업 종사자 중 집배원은 우편물 배송을 위해 이륜차(오토바이)를 이용하는데, 이로 인해 교통사고와 같은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 또한 대부분의 우정사업 종사자들은 장시간노동과 관련하여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이 높다.

1) 출근부터 퇴근까지 소요된 시간으로, 휴게시간과 식사시간을 모두 합한 시간

2) 집배원 노동조건 실태 및 개선 방안.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 2018.

3) 2016년 사업체 노동력조사, 고용노동부



하는데, 이로 인해 교통사고와 같은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 우편물을 구분하고 상하차 작업을 하는 우편원은 중량물 취급과 부적절한 자세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이 높고, 창구 업무를 하는 계리원은 감정노동과 관련한 직무스트레스의 위험이 높다. 또한 대부분의 우정사업 종사자들은 장시간노동과 관련하여 심혈관계질환의 위험이 높다.

추진단의 연구용역 중 건강보험자료를 이용한 분석 결과에 의하면, 우정종사자는 교육공무원에 비해 고혈압성질환 1.75배, 뇌혈관질환 1.23배 높았고, 당뇨의 입원 위험은 1.72배 높았다. 척추증과 윤활막염 등의 근골격계질환, 척추·상지·하지의 골절도 교육공무원에 비해 적게는 1.83배(윤활막염)에서 크게는 4.19배(늑골, 흉골 및 흉추의 골절) 높았다. 또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입원 위험은 2.32배 높았고, 위·십이지장궤양 등 소화기질환의 입원 위험은 1.29배(위염 및 십이지장염)~1.79배(위궤양) 높았다.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우정사업 종사자의 건강관리 체계 구축과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과 관련한 규정 마련을 위하여 2019년도에 연구용역을 발주하였다⁴⁾. 이 연구에서 우정사업 종사자 전체를 대상으로 노동조건과 우울증상 등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3,993명이 응답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바쁘지 않은 기간과 바쁜 기간의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집배원이 각각 10.0시간과 12.0시간으로 가장 길었고, 행정직은 8.6시간과 9.8시

4) 우정사업 전사적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제도적·기술적·행태적 추진방안 연구. 우정사업본부, 2019.

간, 계리원은 8.2시간과 8.8시간으로 집배원 외 다른 직렬도 바쁜 기간에는 하루 9~10시간으로 길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식사시간은 집배원이 19.2분으로 가장 짧았고, 다른 직렬은 42.4~44.7분이었다.

집배원은 우편물 배송을 위해 식사를 거르거나, 편의점에서 간단히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고 식사시간도 매우 불규칙하였다. 전년도와 비교한 노동시간이나 노동강도 변화를 묻는 질문에 집배원이나 우편원 등은 '비슷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53.4~68.8%), 행정직은 '노동시간과 노동강도가 전년도에 비해 증가했다'는 응답이 약 50% 정도였다. 집배원의 흡연률은 47.8%로서 우리나라 남성 흡연률 31.6%(2017년 기준)에 비해 매우 높았고, 고위험음주율은 30.8%로서 우리나라 남성 고위험음주율 21.0%(2017년 기준)에 비해 매우 높았다. 우울증상 조사에서는 행정직에서 중등도 이상의 우울증상이 50%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같은 연구에서 2016~2018년도 우정사업 종사자의 공무상재해 신청자료를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과 비교 분석하여 연령표준화발생비를 산출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남성 우정사업 종사자의 근골격계질환 위험은 경찰공무원에 비해 1.71배, 소방공무원에 비해 1.98배 높았고, 뇌심혈관질환 위험은 경찰공무원에 비해 1.53배, 소방공무원에 비해 1.29배 높았다. 호흡기질환은 경찰공무원에 비해 2.87배, 소방공무원에 비해 5.01배 높았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해 보면, 우정사업 종사자는 노동시간이 매우 길고, 특히 집배원은 식사나 휴게시간이 매우 부족하다. 교통사고와 관련한 안전사고의 위험, 중량물 취급과 부적절한 자세와 같은 인간공학적 위험요인, 감정노동과 직무스트레스 등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며, 근골격계질환, 뇌심혈관질환, 호흡기질환의 위험이 높다. 집배원은 흡연율과 고위험 음주율이 매우 높아 식습관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

우정사업 종사자의 건강관리 위해 안전보건관리 전담조직을 구축해야 해

우정사업본부에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진행된 조사와 연구를 통하여 이러한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다. 문제는, 경찰이나 소방공무원에 비해 우정사업본부의 건강관리 조직이나 체계가 취약하다는 점이다.

우정사업 종사자는
교통사고와 관련한
안전사고의 위험,
중량물 취급과
부적절한 자세와
같은 인간공학적
위험요인, 감정노동
과 직무스트레스
등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경찰과 소방공무원은 건강관리를 위해 법령에 의거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매년 건강진단 결과를 취합하고 있으며, 정신건강관리를 위한 여러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우정사업 종사자의 안전보건관리를 전담하는 종사자가 3명으로 구성되어 총괄적인 부분에서만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여러 부서에서 안전보건 업무를 다른 업무와 병행하며 세부적인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지방우정청이나 일선 우체국에서도 지원과, 물류과 등 여러 부서에서 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다른 업무와 병행하고 있다. 우정사업 종사자의 건강관리 사업은 보건관리 위탁(보건관리대행),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정신건강관리 위탁(EAP 업체) 업무에 국한되어 있다.

우정사업 종사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우정사업본부 내에 안전보건관리 전담조직을 구축하는 것이다.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과 인력이 있어야 건강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그 다음 안전보건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우정사업본부의 연간 안전보건 예산은 약 32억 원인데, 27억 원은 안전보건관리 위탁 수수료, 특수건강진단 5천만 원, 정신건강관리 위탁 용역비 1억 3천만 원으로 사용된다. 우정사업본부는 우정사업 종사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현재보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겠다(참고로 소방공무원의 경우 특수건강진단

우정사업 종사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우정사업본부
내에 안전보건관리
전담조직을
구축하는 것이다.

예산이 연간 150억 원, 정신건강관리 예산이 연간 40억 원에 달한다).

우정사업 종사자는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일부 인원이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을 받는 것 외에는 건강진단과 관련된 규정이 없어 일반건강진단만 실시하고 있다. 건강관리의 관점에서 건강진단이 최선은 아니나, 비교적 적용이 쉽기 때문에 우선 건강진단을 제대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진행된 연구에 의하면 우정사업 종사자는 뇌심혈관질환과 근골격계질환, 호흡기질환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골격계질환의 경우, 3년마다 실시하는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를 강화하여 유해요인조사와 근골격계 증상호소자에 대한 검사를 연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집배원의 흡연률과 고위험 음주를 줄이기 위한 생활습관 관리사업도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보건소의 금연, 절주사업과 연계하여 진행할 수도 있고, 우정사업본부 조직 자체에서 건강증진사업을 기획하고 진행할 수도 있다.

그리고 내부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정사업 종사자의 건강관리, 생활습관 관리, 직무스트레스 관리, 작업환경관리 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면 우정사업 종사자의 건강관리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우정사업 종사자는 경찰이나 소방공무원에 비해 건강 관련 연구나 조사가 많이 진행되지 않았으나, 최근 연구에서 우정사업 종사자의 노동조건이 좋지 않고 건강 위험이 높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우정사업본부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잘 파악하고 있고 개선할 의지를 보인다는 점이다.

최근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안전보건 전문가를 충원하여 안전보건관리 조직을 신설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최근에 의사 인력도 1명 충원되었고, 2020년 중반까지 안전보건 전문가를 충원하고, 안전보건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준비를 하고 있다. 아무쪼록 우정사업본부에 적절한 인력과 조직이 갖추어지고, 앞으로 우정사업 종사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길 기대해 본다. ☺

우정사업본부에
적절한 인력과
조직이 갖추어지고,
앞으로 우정사업
종사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길 기대해
본다.